



법무보호 전북, 직업훈련기관 초청 간담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전북지부(지부장 이순세)는 16일 전북지부 2층 대회의실에서 직업훈련기관 초청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전북지부 이순세 지부장을 비롯해 직업훈련기관 관계자 25명이 참석하여 직업훈련 지원과 원활한 상호교류를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우수교육기관 인증제 도입을 통해 보호대상자의 눈높이를 맞춘 실질적 교육 서비스 제공 방안을 모색하고, 직업훈련기관 위원회를 구성하여 위탁교육의 품질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이 논의되었다. 아울러 자격증 취득 이후 보호대상자의 안정적인 취업과 일자리 연계를 위한 협력 체계 구축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순세 지부장은 “이번 간담회가 직업훈련기관과 보호대상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직업훈련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보호대상자들이 더욱 효과적인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전북에너지서비스, 정읍산불 이재민에 1000만원 전달

전북에너지서비스(주) (대표 서경석)는 지난 15일 정읍시 소성면 금동마을 산불 피해 이재민을 돕기 위해 성금 1000만원을 기탁하며 따뜻한 온정을 전했다.

이날 서경석 대표는 정읍시청을 찾아 성금을 전달하고 피해 주민들의 빠른 일상 회복을 응원했다.

서 대표는 “갑작스러운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들의 아픔에 깊이 공감하며, 보탬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성금을 전달하게 됐다”며 “피해 주민들이 하루빨리 평온한 일상을 되찾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전했다.

이번 기탁은 지역사회와 더욱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기탁된 성금은 금동마을 산불 피해 주민들의 생계지원·생활 복구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국제와이즈멘 전북지구, 정읍산불 이재민에 성금기탁

정읍시 소성면 산불 이재민을 돕기 위해 국제와이즈멘 전북지구가 350만원의 성금을 기탁하며 지역사회에 따뜻한 온정을 전했다.

이번 기부는 전북지구(총재 이승재) 소속 회원 1700여 명이 이재민들의 빠른 일상 복구를 응원하는 마음을 모아 이뤄졌다.

전북지구는 꾸준한 지역사회 봉사활동으로 이미 다양한 분야에서 나눔의 손길을 전해왔다. 지난해 7월에는 전주영아원에 300만원을 후원했고, 같은 해 6월에는 전주교도소와 전북장애인복지관에 200만원 상당의 생수를 전달하며 생활 지원에 나선 바 있다. 또한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남지방에서 짜장면 나눔 봉사 활동도 이어오며 음식 나눔을 통한 정서적 지지에도 힘쓰고 있다.

이와 함께 교육 분야에도 깊은 관심을 갖고 꾸준히 기여하고 있다. 시는 이번 성금을 산불 피해 주민들의 생계 지원과 생활 안정에 사용할 예정이며, 민간 차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기부가 지역 회복에 큰 힘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무주군가족센터, 건강한 가정조성 부모교육 종강

사회복지법인 삼동회 무주군가족센터(센터장 정성철)가 지난 10일 건강한 가정조성 부모교육 ‘아빠 놀러가자!’를 종강했다. 건강한 가정조성 부모교육은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양육하는 아버지와 자녀를 대상으로 3월 27일부터 4월 10일까지 총 4회가 진행됐다.

무주군가족센터는 아버지와 자녀가 함께하는 자녀 소통 교육, 가족 얼굴 케이크 만들기, 태권도원 패키지 체험, 팝아트 초상화 그리기 체험을 진행하였다.

기타 센터 프로그램 안내 및 이용은 063-322-1130으로 문의하거나 홈페이지(<https://muju.familynet.or.kr>)를 통해 자세히 알 수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향기로운 허브로 지역사회에 나눔 전해

정읍시, 어르신 재배 식물 2000개 나눔행사 성황리 마무리

어르신들의 손끝에서 피어난 허브가 정읍 시민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향기를 전했다.

정읍시북부노인복지관(관장 유두희)은 지난 15일 연지아트홀 앞에서 2025년 상반기 반려식물 나눔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 행사는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 중인 어르신들이 직접 재배한 허브 화분을 시민들에게 전달함으로써 지역사회에 공헌하고, 어르신들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2020년부터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 진행되고 있는 이 나눔행사는 올해도 큰 호응 속에 마무리됐다.

이번 행사에서는 장미허브, 한일세이지, 송엽 등 세 가지 허브로 구성된 포트화분 2000개가 준비됐으며, 4개씩 1세트로 총 500세트가 시민들에게 무료로 배부됐다. 행사 현장에는 향기로운 식물을 받은 시민들의 감사와 감동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참여한 한 시민은 “어르신들이 정성껏 키운 허브를 받게 되어 기쁘고, 그 마음을 생각하며 소중히 잘 기르겠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유두희 관장은 “어르신들이 손수 기른 허브를 시민들과 나누며 지역과 소통하고, 노인일자리 사업이 지



정읍시북부노인복지관(관장 유두희)은 지난 15일 연지아트홀 앞에서 2025년 상반기 반려식물 나눔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역사회에 긍정적인 가치를 전하는 좋은 사례가 됐다”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시는 앞으로도 다양한 노인복지 프로그램을 통해 세대 간 공감과 연결을 넓혀가며, 지역사회 속 활기찬 노인 문화를 만들어갈 계획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전북가족센터·전북발달장애인지원센터, 업무협약 맺어

전북여성가족재단 소속 전북특별자치도가족센터(센터장 우소영)는 16일 한국장애인개발원 산하 전북특별자치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센터장 백재경)와 지역사회 발달장애인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각 기관 대표를 비롯한 관계자 8명이 참석, 도내 발달장애인 당사자와 가족 지원을 위한 상호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삼상호이해와 협력 증진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지역사회 발달장애인의 인식개선 △발달장애인 및 발달장애인 가족 지원 △양 기관 사업홍보 및 교류 △다문화가족 내 발달장애인 복지서비스 연계 △기타 협력 가능한 공동사업의 수행 △양 기관 관심사업 발전을 위한 협력 및 자문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우소영 센터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협력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도내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특별자치도가족센터는 도내 가족지원 서비스 광역거점기관으로, 2025년 1월부터 전북여성가족재단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다.

/장은성 기자

체결교원 교육권 보호 위한 법률지원 기반 강화

전북교총, 법무법인 기세와 협약

전북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오준영)는 16일 법무법인 기세(대표 전재근)와 교원보호와 교육현장 법률지원을 위한 업무협력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분쟁과 법률적 문제에 대해 두 기관이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와 권리 보장을 위한 법률적 기반을 더욱 견고히 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협약식에서는 법무법인 기세 군산분사무소의 최정원 변호사가 전북교총 고문변호사로 공식 위촉됐다.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전북교총 회원의 교권침해 회복을 위한 법률 상담 △전북교총의 임법 및 법률 해석 요청에 대한 자문 △학생 및 교원 대상 법률교육 지원 △교권 및 법률 관련 공동연구 및 세미나 추진 △양 기



관 관련 사업에 대한 홍보 및 협력 분야에서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비전대, 장기기증 희망등록 서약 행사 진행

전주비전대학교 응급구조학과는 지난 15일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전북지부(지부장 문병호)와 함께 장기기증 희망등록 서약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의료 현장에서 환자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시간’과 ‘기회’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절실히 느끼는 응급구조학과 학생들이 생명존중의 가치를 직접 실천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전주비전대에 따르면 응급구조학과는 지난 2012년부터 매년 전 학과 학생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장기기증 희망등록 운동을 이어오고 있다.



특히 이날 행사에는 윤형완·홍수미 교수를 비롯한 학과 교수진과 재학생들이 함께 해 단순한 등록을 넘어 ‘생명나눔’의 정신을 실천으로 옮긴 의미 있는 캠페인으로 진행됐다.

/장은성 기자

남원수지면, 영남지역 산불 피해 지원 성금 전달

남원시 수지면 (면장 소명호)과 면 발전협의회 (발전협의회장 박환경)는 영남지역 산불 피해 주민들을 지원하는 성금 510만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성금은 수지면 주민들과 이장협의회, 새마을회, 부녀회 등 지역 단체들이 자발적으로 모금에 참여해 마련되었으며, 피해 지역 주민들의 신속한 복구와 일상 회복을 위해 사용 예정이다.

박환경 회장은 “앞으로도 지역과 함께하는 연대와 나눔의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으며, 소명호 수지면장은 “이번 기부가 피해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위로와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 덕과면, 보이스피싱 예방·홍보물 배부

남원시 덕과면 행정복지센터(면장 성월계)는 지난 14일, ‘1일1가구 소동행정’의 일환으로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을 실시하면서 공공홍보물 배부 활동을 전개했다.

이번 활동은 증가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주민 스스로가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덕과면 직원들이 직접 경로당 및 각 가구를 찾아가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교육에서는 보이스피싱의 주요 수법과 예방법 및 신고 절차를 설명하고 특히, 금융사기에 취약한 고령층을 대상으로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맞춤형으로 설명했다.

성월계 덕과면장은 “보이스피싱은 갈수록 수법이 교묘해지고 있어 선제적인 예방이 중요하며, 앞으로도 믿음으로 주민들과 소통하며 안전한 덕과면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주교도소 “교정공무원 사칭 사기 피해 주의력”

최근 전국적으로 교정기관 및 교정공무원을 사칭하여 사기를 시도한 사건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상황으로 소상공인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전주교도소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현재까지 약기사, 가구업체, 주방업체 등 업체를 불문하고 전주교도소 소속 직원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불특정 다수로부터 물품 주문을 받고 이와 더불어 해당 업체에서 취급하지 않는 방탄복의 구매대행과 대납을 요구받았다. 이 과정에 위조된 허위 공문서, 사업자등록증, 명함을 사용하여 기만했으며, 특히 해당 기관에 소속된 동일한 이름을 사용하는 등 그 수법은 더욱 교묘해졌다.

다행히 업체 관계자는 이를 이상히 여겨 전주교도소로 확인차 문의하여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이에 전주교도소 윤순종 소장은 “교정기관은 물품 구입 시 대납을 요구하지 않으며, 의심스러운 때는 해당 기관에 확인과정을 통해 소상공인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기를 각별히 유의해주시 바란다.”며 당부의 말을 전했다.

/이만호 기자

전북소방, 소방용수시설 주변 불법 주차차 단속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본부장 이오숙)는 16일 전주시와 군산시 일대에서 소방용수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지자체 합동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단속은 오전에는 전주시, 오후에는 군산에서 각각 진행됐으며,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를 비롯해 지역 소방서와 해당 지자체가 공동으로 참여해 민관 합동 대응체계를 가동했다. 주요 단속 대상은 소화전과 비상소화장치함 등 소방용수시설 및 관련 소방시설로부터 5미터 이내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이다.

/이만호 기자

무주국유림관리소, 산불예방특별대책 기간 캠페인

산림청 무주국유림관리소(소장 이성호)는 봄 벚꽃철을 맞아 16일 행락객이 많이 모이는 마이산 도립공원 일원에서 직원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산불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고 산림보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서 ‘산불예방 및 산림정화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최근 대형산불이 여러건 발생한 가운데 산불예방특별대책기간을 맞아 영농부산물 소각 금지, 화기소지 입산 금지, 지정장소 외 취사행위 금지 등 올바른 등산 문화를 알리기 위해서 실시했다.

또한, 산림보호 인식개선을 위하여 임산물 불법채취 및 식생훼손 금지를 홍보하고 산을 찾는 등산객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등산로 주변 쓰레기를 수거하는 등 산림정화 활동과 더불어 산림규제혁신과 적극행정 캠페인도 실시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전주매일		www.jmaeil.com		2009년 11월 23일 등록(일간)	
		등록번호 전북 가00016		(우)600-912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4층 (서노송동)	
발행·편집인 조봉성		부회장 김승곤		부사장 김양욱	
• 대표전화 288-9700 • 업무국 FAX 288-9703 • 편집국 FAX 288-9704					
전주시사 010-9845-4113	중앙지사 인후지사 246-6855	010-9088-6874	남원지사 김제지사 545-1227	632-3996	익실지사 진안지사 433-3064
삼천지사 010-2333-4791	송천지사 255-2404	255-2404	남원지사 632-0995	632-0995	정읍지사 536-3787
서신지사 272-9417	팔복지사 253-6844	253-6844	순창지사 653-0444	653-0444	정수지사 010-3682-6157
호지지사 010-8645-9935	군산지사 010-6789-0038	010-6789-0038	부안지사 010-2425-4182	010-2425-4182	무주지사 010-2300-4253
	익산지사 859-9923	859-9923	고창지사 563-6999	563-6999	
※구독료 : 월10,000원, 1부 500원 인쇄인 이상현 **본지는 신문윤리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